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 하 실패면 '세금먹는 하마'

# 지원금·운송원가 산정 투명하게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차량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감소하는 등 교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민영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낮아져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37.5%(2005년 말 기준)로 '시민의 발'이자 사회간접자본이다.

도로개통이나 확장만으로는 이제 교통문제를 해결에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대중교통을 살리는 것이 곧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길이다.

광주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148억원을 투입, 선진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미 시행중인 대구와 대전 등이 합격점을 받지 못한 만큼 전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도시들은 공평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해 시민들의 호응

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 지출이 예상 보다 늘고 있다. 대구시는 버스업체들과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버스업체들이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시가 직접 운영권을 인수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지역 시내버스 대표들은 준공영제를 시

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는 준공영제 실시 1년여 동안 446억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버스업체에 대한 세부 관리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 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 뒤 경비직원을 증원하고 임원 인건비를 증액해 53억원의 경비지출을 늘렸지만 시가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업체의 배만 불렀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준비과정에서 타 지역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 여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원칙에 입각한 경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한 행정과 정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 및 서비스 제고만이 준공영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정시운행 등 서비스 질 높이고 혈세 안 새도록 사후관리 철저

행하면서 대구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유류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이 비현실적으로 계산돼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제도 도입 9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는 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시도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과 정시성 미확보, 이용 불편 등

### 이것만은 꼭 알아 두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1일부터 시작되면,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것 외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카드 사용법 등 꼭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본다.

◇ 카드 한 장이면 'OK'=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간 무료 환승이 가능한 통합환승요금제가 시행된다. 환승기준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처음 탔을 경우 승차시간 기준 1시간 이내(지하철을 처음 탔을 경우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로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료환승 요금 적용 기준은 각 교통수단간 요금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 승차한 후 1시간 이내 무제한 환승

차액을 더 내야 하며, 시내버스의 시계와 요금과 마을버스의 오지구간 요금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환승 시 주의사항=카드 한 장으로 한 사람만 환승할 수 있다. 또 같은 노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지하철'이나 '순환01에서 순환01' 등의 동일노선에는 환승할 수 없다. 현금과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환승할 수 없으며, 전남 농어촌버스와의 교통카드 호환은 가능하나 무료환승은 안 된다.

특히 지갑 안에 2개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감지기에 혼란을 초래, 사용이 안되거나 중복으로 차감될 수 있다. 교통카드 구입 때 종교생은 학생증을, 어린이는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해야 구입할 수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버스노선 안내 문의 홈페이지 (<http://bus.gjcity.net>) 전화상담 (062-613-5700)



시장 홍보관 개관

박광태(왼쪽) 광주시장과 유태명 동구청장 등이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광주시장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장애인·노약자 위한 '저상버스'

## 광주시, 내년 10대 추가 투입

광주시는 19일 내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시내 저상버스는 32대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하지만 이같은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933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오는 2013년까

지 9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51번 1개 노선에 14대를 투입하여 장애인이용시설, 학교, 재래시장, 종합복지관, 아파트 단지 등을 돌게 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에게도 승차시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며 휠체어 탑승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상버스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광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버스 노선 안내시스템'(<http://bus.gjcity.net>)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저상버스 버스 전면 오른쪽과 앞쪽 출입문 왼쪽에 '장애인 표지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중흥동에 '전통미용문화 전시관'

##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 내년 6월 완공

전통 미용문화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기공식이 19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북구 중흥동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건너편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송광운 북구청장, 김중채 빛고을문화재단이사장, 이성자 빛고을문화재단 설립자, 김진숙 한국고전미학회 광주지부장 등 미용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시관 건립은 지난 2002년 이성자

(이순 미용실 원장)씨가 20여 년 동안 수집한 미용용품 700여 점을 빛고을문화재단에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시관은 11억 9천만여 투입돼 부지 124평, 연면적 241평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아시아 미용체험 스튜디오 ▲2층 기획전시실과 영상실(세미나실), 자료 열람실 ▲3층 상설전시실 ▲4층 사무실 등이 꾸며진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시는 19일 재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광주·대인·양동북개·양동·송정5일·비야5일 시장 등의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승용차 기준 현재 1시간 1천400원에서 50% 할인된 700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길이 50m·너비 3.5m의 남광주 시장 진입로를 개통해,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했다.

/김주정기자 jnews@

**한가위**

12인승 차량운영

#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 모임
- 상견례
- 직통세미나실
- 돌잔치
- 고향연
- 문화행사

##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특허된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 시리즈

**JOY**

**REPLY**

**FURSYS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 225-5100**

**무등산업**

사무용 의자, 생활 의자, 생활 의자, 생활 의자

100-0001-7095, 011-601-7701

사무용 의자, 생활 의자, 생활 의자, 생활 의자